

大韓醫療氣功學會

대한의료기공학회지
J. OF MEDICAL GI-GONG
Vol.11. No.1. 2009.

傳統 胎敎의 文獻的 考察 및 禁忌 研究

박지현* · 배재룡* · 하정아* · 홍승철*

* : 대한의료기공학회

ABSTRACT

A Study on Taboo in the Traditional Prenatal Education from the Medical Perspective

Jee-hyun Park* · Jae-ryong Bae* · Jeong-A Ha* · Seung-cheol Hong*

*Dept.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in modern education by analysis on the contents of taboo in the Korean traditional prenatal education. For this study, the concrete matters are prepared for investigation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prenatal education are analyze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inese bibliography and the Korean bibliography related to its own traditional prenatal education.

· Received : 18 November 2009 · Revised : 12 December 2009 · Accepted : 27 December 2009

Correspondence to : 박지현 (Jee-hyun Park)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740-8 휘담메디한의원

Tel : 02-846-1460

Fax : 02-846-1462

E-mail : sweetpee1102@hotmail.com

Second, the contents of taboo in prenatal education are broadly classified into *Chun-ki*(天忌), *Chi-ki*(地忌), and *In-ki*(人忌), and in turn, *In-ki* is classified into taboo related to clothing, taboo related to food, Taboo related to housing, and man's taboo, and all of them are interpreted.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aboo in the Korean traditional prenatal education and its principle are analyzed, and its significance is researched from the modern educational point of view.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the contents of taboo into *Chun-ki*, *Chi-ki*, *In-ki*, and man's taboo based upon analysis of the documentary records related to the traditionary prenatal education in China and Korea for the successful investigation.

The characteristic such as common discipline, the time limit and prevention are induced on the basis of this investigation, and its modern educational significance as follows:

First, prenatal education must be conducted as a part of youth education and preparatory parents education for the married couple.

Second, man or husban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of practising taboo in prenatal education.

Third, taboo in prenatal education is very suggestive in the aspect of human relationship and mental health of the pregnant woman.

Fourth, it prevents her obesity and strain.

Fifth, the scientific proof and education of taboo related to food must be needed.

Keyword: Tradition, Prenatal education, Taboo

I . 緒論

임신은 인류의 역사에서 종족을 보존시키고 세대를 계승시키는 핵

심 요소이다. 임신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은 각 문화에 따라 고유한 방식으로 계승 및 발전되어 왔고, 우리 문화에서는 ‘胎敎’라는 임신관리 행위를 실천해왔다¹⁾.

인류는 수만 년 동안을 여성의 몸을 빌려 생명을 계승하고 역사를 창조해 왔다. 과학이 첨단을 걷는 오늘날에 와서도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며 변한 것이 있다면 불임여성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아기를 갖게 하는 몇 가지가 개발되었을 뿐이다. 어머니의 뱃속은 인간이 경험하는 첫 세계이며 바로 이곳에서 인간의 기본 심성이 결성되기 시작하고 태아의 건강은 모성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태아를 하나의 인간으로 간주해서 태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

한국 전통사회는 사회적으로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두어 집안을 번창 하게 하며 대를 이어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일이 무엇보다 바람직하고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명의 잉태와 관련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한 인간을 출산 및

교육하기 위해서는 잉태하기 전에 여자에게 어머니로서, 남자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요구되었다³⁾.

이를 위해 우리 선조들은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올바른 아기의 탄생을 위해 태교라는 이름 아래 임부의 섭생을 부녀자들에게 엄히 가르쳐 왔다. 또한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한 살이라 하여 나이를 가산해 주었는데 태아기의 10개월을 가산한 이러한 나이 계산법은 전통사회의 아동관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며 이러한 인격체로서의 태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태교 사상이 발전되어 왔다. 즉 태교 사상은 생명 존중 사상에 근거해서 선조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진 선구적인 교육관이라 할 수 있다.

전통 사회의 태교 목표는 일차적으로 현명하고 재주 있는 단정한 아이의 출생에 두고 있다. 즉 도덕적, 지적, 신체적으로 우수한 아이의 출산이 목표였던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부는 음악 감상과 시 낭송을 통한 정서

1) 琴玄洙 : 傳統的 胎敎와 現代的 胎敎의 比較考察, 東西醫學 77, 1999, pp.34~52.

2) 金惠子 : 出産 婦人의 胎敎 實態에 관한 調査 研究, 全南大 大學院, 1991, p.18.

3) 하수연 : 한국 전통 태교의 금기에 관한 연구, 東亞大 敎育大學院, 1999, p.1.

및 예능 방면의 교육, 좋은 말과 행동을 많이 하고 나쁜 말과 행동을 삼가는 도덕 방면의 교육, 부적절한 음식을 피하고 도움이 되는 음식의 섭취를 통한 건강 방면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통 사회의 태교 방법으로는 행동상의 절도 및 심리상의 절제가 주가 되었다. 이는 태교가 유아 교육, 아동 교육과 달리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명시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교육적 행위라기보다는 교육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실질적 피교육자인 태아에 미치는 비교육적 환경의 영향을 통제하고 금지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을 negative 방식과 positive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임부와 태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금지하는 각종 금기로 나타났으며,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임부에게 좋은 환경의 접촉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태교(prenatal education)란 胎

4) 안경식 : 중국 전통 태교론의 형성과 전개 과정, 한국적인 의미와 학토볼이, 1999, p150.

中教育의 준말로 태중의 아기를 교육한다는 뜻이다⁵⁾. 이는 곧 출생 이전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잠재의식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출생 후의 교육은 지식을 축적하는 데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나 출생 전의 교육은 품성과 기질을 닦는데 크게 역할을 한다. 태교의 내용은 임부의 태도와 언행 여하가 태아 출생 후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에서 출발한다⁶⁾.

태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임신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말과 행동, 마음가짐 등을 조심하는 일”⁷⁾, “임신 중에 태아에게 좋은 감화를 주기 위하여 임부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가는 일, 또는 그 가르침”⁸⁾, “임신 중에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임부가 지켜야 할 규칙, 말씨와 행동을 조심함으로써 태아에게 절로 좋은 감화

5) 주정일 : 태교 출산의 지혜, 서울, 샘터사, 1994, p.9.
 6) 김계숙 : 한국 기혼남녀의 태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1987, p.15.
 7)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서울, 웅진출판, 1995.
 8) 두산동아편집부편 : 새국어 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를 주는 것”⁹⁾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태교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 ‘삼가, 규제, 조심’ 등의 여러 가지 제약을 들고 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훌륭한 아기를 낳기 위한 지침으로 지켜야 할 제약, 즉 금기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의 내용을 태교 금기라 할 수 있겠다. 금기는 인간의 삶에 금지나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법률제도, 도덕규범과 유사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어떤 강요된 힘이나 이념의 체계에 의해 타율적으로 형성된 법률제도, 도덕규범과는 달리 무형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 불행을 피하려는 심리적 본능이 자연스럽게 삼가고 조심하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생명의 잉태와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받들고 믿었던 점들이 태교 금기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서양 의학적 태교에서는 전통적 태교와 달리 Prenatal Care 혹은 Prenatal Training의 관점으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¹⁰⁾.

본 논문에서는 서양 의학적 태교로 중시되고 있는 Prenatal care, 즉 산전관리의 개괄을 언급하고, 이에 대비되는 전통 태교와 관련된 중국 문헌과 한국 문헌을 중심으로 태교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헌에 나타난 전통 태교 금기의 내용을 분류하고 그 특성 및 원리를 분석하여 의의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II. 本 論

1. 胎敎와 産前管理

1) 산전 진단의 방법

산전 진단의 방법으로는 양수천자로 얻은 양수와, 양수내의 태아세포를 이용하는 진단법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며, 이는 임신 12주에서 임신 20주 사이에 양수천자를 하여 2주에서 3주 이상 염색체를 배양하여야만 그 결과를

9) 민중서림 편집국 : 엡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9.

10)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 산과학, 서울, 칼빈서적, 1991, p.191.

알 수 있다. 진단시기가 빠를수록 치료적 유산을 시행하기 쉬우나 양수천자의 최적 시기는 임신 14주에서 임신 16주이고 실제로 임신 16주 이상이 되어야 검사에 필요한 30ml 이상의 양수를 용이하게 채취할 수 있다.

양수천자에 의한 검사방법 이외에 초음파 단층상촬영, 융모막융모생검, 태아경검사, 태아혈액검사가 산전 진단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¹¹⁾.

산전관리절차는 임신을 조기 진단하는데서 시작하여 초진 및 재진을 통하여 위험이 많은 임신을 인지하는데 있다. 고위험임신은 전문의원에서 출산을 권하고 저위험임신은 일반의원에서 출산할 수 있다. 동시에 건강교육과 지도를 하여 모성 및 태아의 건강을 유지, 개선하고 모성의 불안을 해소하여 분만에 이르도록 한다.

정기진찰에 있어서는 진찰 때마다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및 태아의 성장도를 알기 위해 태아의 심음, 태아의 크기와 성장도, 양수, 태동, 모체의 혈압, 체중, 이상증후, 자궁저의 높이, 임신기간,

내진 등을 실시한다.

2) 산전관리의 개념과 태교와의 차이점

産前管理¹²⁾란 Prenatal Care 또는 Prenatal Training이라고 표현하는데, 현대 사회에 와서 서양의학의 도입은 임신을 문화적 현상과는 분리된 단순한 생리학적, 병리적 사건으로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다. 서양의학의 도입 이래 우리 사회에서 임신은 의료기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분만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병원에서 관리되므로, 임신은 의료체계 속으로 급격히 편입되어 들어가고 있다. 임신관리를 위한 병원의 역할이 비대되는 반면 임신을 위해 제공되는 현생의 산전관리는 생리, 병리학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게 때문에 임신부부들이 문화적 관행에 따라 큰 비중을 두고 실천해 온 임신관리 방안인 전통적 태교의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다고 한다¹³⁾.

12) 이인산 : 산전관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993, p.59.

13) 김현옥 : 태교실천에 대한 일상 생활 기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1) 上揭書, pp.176~ 177.

산전관리란 모성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산전관리의 목적¹⁴⁾은 바라던 임신이 모성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적절한 산전관리는 모성 및 주산기 사망과 이환을 예방, 감소하는데 가치가 있으며 태아 건강평가기술의 발달로 양질의 산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도 하다¹⁵⁾.

그러나 산전관리는 잉부의 건강과 태아의 정상적인 신체발육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잉부와 태아의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가, 잉부 조수에 맞게 태아가 성장하고 있는가의 측면만을 다루고 있으니, 잉부의 건강과 태아의 정상적인 신체발육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재능이나 두뇌 발달, 정서적 발달, 인격 발달, 아이의 장래에 좋은 의미 부여까지 초점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부모로서의 정체감 형성을 도모하여 부모역할 습득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보다 폭넓은 차원을 추구하는 전통적

태교와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태교는 산전관리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가는 실천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높은 차원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행위이면서 우리 문화에 익숙한 실천 지향적인 행위인 것이다.

3. 傳統 胎敎 關聯 文獻 考察

한국 전통 태교 사상의 구체화는 대체로 중국 고전에서의 인용 해석이거나 부분적인 인용이었고, 그것은 본받아야 할 가르침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민중의 생활 속에서도 관습에 의한 잉부보호나 음식물 금기 등으로 전해지면서 준수되거나 실천되었다¹⁶⁾.

문헌상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임신·태교·육아에 대한 기록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동양적 문화의 틀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받아 왔으며, 태교에 관한 문화적 전래도 예외일 수는 없었으므로 중국 태교를

1996, p.200.

14)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 前揭書, p.191.

15) 上揭書, p.191.

16) 이원호 : 오늘의 태내 교육,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7, pp.17~18.

바탕으로 우리나라 태교가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전통사회의 태교가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태교의 기록은 고려시대 말기에 쓰인 《胎中訓文》에서 시작되는데, 태교라는 기록은 고려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쓰인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즉 태교의 단편적인 기록은 중국의 戴德이 저술한 《大戴禮記》 제3권 48 保傳편에서 발견되었고, 3세기경 長華의 《博物志》, 6세기경 남북조 시대에 顏之推가 남긴 《顏氏家訓》에서도 태교 기록이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朱子の 《小學》에서도 태교의 내용 및 금기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전통 태교 사상이 중국의 태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정서에 맞게 구성 및 편찬된 것이라고 본다면 한국 전통 문헌 뿐 아니라, 중국의 전통 문헌도 함께 살펴보는 접이 의의가 있다고 본다.

1) 중국 전통 태교

중국 최초로 실시된 주 왕실의 태교와 그 시대의 일반적 태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직·간접 자료는, 첫째 賈誼의 《新書》胎敎, 둘째 戴德의 《大戴禮記》保傳, 셋째 戴聖의 《禮記》內則 및 月令, 넷째 劉向의 《列女傳》周室三母 등이 있다. 이후의 자료 중 주 왕실 및 선진 시대 태교 관련 내용은 모두 이들 자료에 나타난 내용의 반복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학적 입장에서 태교 문제를 언급한 《新書》, 《禮記》, 《列女傳》과 의학적 입장에서 중국 전통 태교론을 엮어 놓은 《博物志》, 《逐月養胎方》을 위주로 중국 태교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⁸⁾.

(1) 《新書》의 ‘胎敎’편

문헌상 태교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최초의 기록은 賈誼의 《新書》의 ‘胎敎’편이다. 賈誼는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전 168년까지 생존한 서한 시대의 정치가

17) 유안진 :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pp.128~129.

18) 하수연 : 前揭書, p.9.

요 문학자로서 24세 때 장사왕의 태부가 된 사람이다. 그가 이 ‘태교’편을 쓴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33세에 요절한 그의 글들은 거의 23세 이후에 쓰인 것이다. 그런데 이 ‘胎敎’편의 내용은 그가 독창적으로, 그의 생각을 창작한 글이 아니고,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던 태교론의 내용을 다른 책에서 인용 소개한 것이다. 그가 인용한 책은 《靑史氏》의 ‘記’이며, 따라서 기록으로 된 최고의 문헌은 《靑史氏》의 ‘記’가 되며, 구체적인 태교 실시자로는 문왕모와 성왕모가 가장 앞선 사람이었다¹⁹⁾.

賈誼의 《新書》‘胎敎’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교의 방법은 옥으로 만든 판에다 새겨 기록하여 금속으로 만든 상자에 넣어 종묘에다 안치하여 후세의 계율로 삼게 했다. 옛 사관의 기록인 《靑史氏》의 ‘記’에 이르기를, 옛 태교의 방법은 왕후가 임신한 지 칠개월이 되면 簠室로 가야 하는데 문밖 왼쪽에는 太師가 소리의 높낮이를 재는 동이란 기구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문 오른쪽에는 太宰가 두라는 마실 것을

담는 기구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太卜은 점치는 기구인 시초와 귀갑을 가지고 집 앞에 대기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관직을 가진 사람들은 대궐 안에서 각기 그 직분대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삼개월 동안은 왕후가 듣고자 하는 음악이 예에 맞는 음악이 아니면 태사는 악기를 감추면서 그런 음악은 배우지 못해 들려 드리지 못한다고 해야 하고, 먹고자 하는 음식의 맛이 적절한 맛을 벗어났다고 생각되면 태사는 ‘감히 장차 태어나실 왕태자에게 이런 법도에 맞지 않은 음식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리하지 말아야 한다…주나라의 왕후가 성왕을 임신했을 때, 한 발로 서지 않았으며, 비뜰게 앉지 않았으며, 떠들썩하게 웃지 않았으며, 홀로 있어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화가 나더라도 욕하지 않았으니 태교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⁰⁾.

위의 기록을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고대 왕실의 태교 방법을 ‘옥으로 만든 판에다 새겨

20) …靑史氏之記曰 古者胎敎之道 王后有身 七月而就蓐室 太師持銅而御戶左 大宰持斗而御戶右 太卜持蓍龜而御堂下 諸官皆以其職御於門內 比三月者 王后所求聲音非禮樂 則太師撫樂 而稱不習 所求滋味者非正味 則太宰荷斗 而不敢煎調而已 不敢待王太子…

19) 안경식 : 前掲書, pp.127~128.

기록하여 금속으로 만든 상자에 넣어 종묘에다 안치하여 후세의 계율로 삼게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靑史氏》의 ‘記’에 기록된 것으로 왕후가 임신했을 때 별실에 기거하면서 태교를 하는 과정이며, 셋째는 성왕모의 구체적 태교 내용을 적은 것이다.

이 중 첫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왕실이 태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왕실 태교법이 정형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정형화된 왕실 태교법은 당연히 예법으로 정리되어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고 이를 서한 시대에 이르러 대덕이 古禮를 정리하여 《大戴禮記》를 편찬할 때 ‘保傳’편 속에 넣지 않았나 생각된다.

둘째의 내용은 당시 왕실 태교 예법에는 임신 7개월이 되면 별실에 기거하게 되며, 그 별실 곁에는 태사가 음악 담당관으로, 왕가의 집안일을 담당하는 태재가 음식 담당자로, 복술 담당관 태점을 비롯한 여러 관리들이 산모의 각종 행동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 통제의 이유는 태아에 대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함이며, 이때 허용과 통제의 기준은 ‘예’이다. 즉 ‘예’에 합당한 것은 허용되고 권장되었으며, ‘예’에 위배되는 것은 금지, 통제되었던 것이다.

셋째의 내용은 문왕모의 태교 내용과 함께 중국 전통 태교의 전형이 된 내용이다. 문왕모의 태교 내용은 행동거지상의 절도, 심리상의 절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위의 둘째 내용이 타율적 통제였다면 이는 자율적 통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태교의 내용은 전적으로 태교에만 한정된 내용은 아니고 선진 유가 교육의 보편적 내용으로 태교에까지 적용되었던 것이다²¹⁾.

(2) 《禮記》의 ‘內則’ 및 ‘月令’ 편에서는

아내가 산월이 되면 그 달 초하루부터 측실에서 기거해야 한다. 남편은 다른 사람을 시켜 하루에 두 번씩 상황을 물을 수 있고, 출산의 낌새가 있다면 스스로 직접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을 그대로 대할 수 없고 여사인 모를 시켜 산모가 옷을

21) 안경식 : 前掲書, p.129.

갖추어 입게 하고 마주 대해야 한다. ‘內則’

(2월에는) 우리가 소리를 내서 운다. 몸가짐을 삼가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자식을 낳아도 온전하지 못하며 반드시 재앙이 있다. ‘月令’ 22)

라고 신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 王后가 아닌 ‘妻’의 태교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앞은 《新書》에서 본 바와 같이 왕후의 경우 임신 7개월에 별실로 옮겨가서 여러 가지 태교와 출산 준비를 하지만 처의 경우는 산월이 되어서야 별실로 옮긴다는 것이다.

둘째,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일반 사대부의 경우는 남편도 부인의 출산 상황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출산의 김새가 있으면 직접 부인과 대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는 부인 임신기에 남편의 역할 혹은 도리에 대한 규정이다.

셋째, 태교 이전의 몸가짐에 대

22) 이민수 : 예기 역해, 서울, 혜원출판사, 1995, p.208.

한 이야기이다. 즉 태교란 임신 후의 일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천기를 지켜 임신을 해야 함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 천기는 태교에 선행하는 교육적 조치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 전통태교에서는 天忌, 地忌, 人忌를 비롯한 적지 않은 금기들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런 금기 때문에 전통태교가 오늘에 와서 비과학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이런 금기들은 교육적 의도를 담고 있는 행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치를 인정하여 당시의 禮에 넣었던 것이다²³⁾.

(3) 《列女傳》의 ‘周室三母’편

前漢의 劉向이 편찬한 《列女傳》 ‘周室三母’편에는 문왕모인 태임의 태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태임은 문왕의 어머니로 집임씨의 가운데 딸로서 왕계가 왕비로 맞아들였다. 태임은 성격이 진실되기도 엄숙하며 행동은 덕성스러웠다. 임신을 하여서는 눈으로 나쁜 것을 보지 않았으며, 귀로는 도리에 어긋난 소리를 듣

23) 안경식 : 前揭書, pp.130~131.

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거만한 소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태교를 할 수 있었다. 돼지 마구간에서 일을 보다가 문왕을 낳았는데, 문왕은 태어나면서부터 현명하고 뛰어나 하나를 가르치면 백가지를 알 정도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태임을 보고 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옛날에는 부인이 임신하였을 때, 옆으로 눕지 않았으며, 모나게 앉지 않았으며, 삐뚤게 서지 않았다. 또 이상한 맛이 나는 음식은 먹지 않았으며, 바르게 자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으며, 바르게 놓이지 않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밤이면 소경을 시켜 시를 읊조리게 하고 올바른 것만 말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생김새가 단정하고 재주와 덕성이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다²⁴⁾.

劉向은 여기서 중국 최초의 태교가 되는 문왕모의 태교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눈으로, 귀로, 입으로 행동거지를 신중히 했다는 것이 주가 되며, 당시 선진 유가의 교육 이념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왕모의 태교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임부를 대상으로 밤이면 소경을 시켜 시를 읊조리게 했

다는 것이다. 이는 소경은 나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 소경을 시켜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시를 읊게 한다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임부를 대상으로 한 전문 태교행위이다²⁵⁾.

(4) 《博物志》

《博物志》는 한말부터 위진남북조 초기의 여러 민간풍속을 책으로 엮어 놓은 것으로, 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

부인이 임신했을 때는 추악한 것, 이상한 들짐승과 날짐승을 보게 해서는 안되며,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한다. 또 곰이나 표범 같은 사나운 짐승을 보게 해서도 안되며, 사냥꾼이 새나 꿩 사냥하는 것을 보게 해서도 안되고, 소의 심장이나 흰 개의 고기, 잉어머리를 먹게 해서도 안된다. 바르지 않은 자리에 앉지 말며, 잘못 썬 음식을 먹지 말며, 시서 읊조리는 소리를 듣게 해야 하며, 음탕한 소리나 이상한 모습을 보게 해서도 안된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야 똑똑하고 단정하고 장수할 수 있

24) 劉向：列女傳，四庫全書，pp.10~11.

25) 안경식：前掲書，p.131.

다. 이런 것이 이른바 부모의 태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임신했을 때 반드시 감응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착한 것에 감응되면 착해지고 악한 것에 감응되면 악해지기 때문이다. 임신하여 토끼고기를 먹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토끼를 보아서도 안된다는 것은 아이가 언청이가 될 가능성 때문이며 생강을 먹어서 안된다는 것은 태어날 아이가 손가락이 많은 다지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²⁶⁾.

張華는 여기서 먼저 임부의 금기에 대하여 상세히 적고 있다. 이미 한나라 말기에는 ‘금기론적 태교론’이 상당히 유행했으며, 남북조 초기에 오면서 그 정도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張華는 ‘부모의 태교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태교를 임부의 일로만 보지 않았던 것이다. 시서 읊조리는 소리를 듣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남편의 임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태교의 목적을 ‘뚝뚝하고 단정하고 장수하는’의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지금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知, 德, 體 세 방면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張華는 여기서

부인이 임신하여 삼 개월 미만에 남편의 의관을 입고 새벽에 왼쪽으로 우물을 세 바퀴 돌면서 우물 속의 그림자를 자세히 살피되, 떠날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하고, 이러한 것을 남 모르게 하면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는 내용도 같이 소개하였다. 이를 보면 임신 3개월을 남녀 결정의 분기점으로 보았다는 것과 당시 태교론이 남아선호 사상과도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逐月養胎方》

북제의 의학자인 徐之才(493~572)의 《逐月養胎方》은 중국 전통 태교론이 종래의 윤리, 철학 중심의 태교론에서 의학 중심의 태교론으로 접어든 후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술이다. 《逐月養胎方》에 나오는 태교의 내용은 孫思邈의 《千金要方》 속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 劉向 : 前掲書, pp.607~608.

임신 1개월을 ‘始胚’ 라고 하는데 음식을 세심하게 익혀 먹어야 하며 보리를 많이 먹어야 한다. 足厥陰脈이 길러지는 시기로 그 부위에 침이나 뜸을 놓아서는 안된다. 힘든 일은 하지 말고 잠자리를 안정되게 하며 놀라게 해서는 안된다.

임신 2개월을 ‘始膏’ 라고 하는데 시거나 누린내 나는 것을 먹지 말고 조용한 곳에 거처해야 하고 남자가 범하지 말아야 한다. 足小陽脈이 길러지는 시기이고 태아의 정기가 태에서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마땅히 조심하고 놀라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임신 3개월은 ‘始胎’ 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태아 형태가 이루어지지만 고정된 형상이 아니고 외부 대상의 감응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정하고 씩씩한 아이를 낳으려면 언행과 행동이 끝나야 하는 것이다. 아들을 낳으려면 활을 차고 다녀야 하고, 활과 화살을 만져야 하는 것이고, 딸을 낳으려면 가죽을 차고 다녀야 하고, 등근 육을 지니고 만져야 하는 것이다. 아이가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백옥을 자주 보아야 하고, 어질고 똑똑하기를 원한다면 단정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고 비워야 한다. 이것을 ‘外象內感’ 이라고 한다. 또 이 시기는 手心主脈이 길러지는 시기고 手心主는 심장에 속하므로 지나친 슬픔이나 생각, 공포에 빠지지 않

도록 해야 한다.

임신 4개월은 水의 정기를 받아 태아의 혈액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때 태아의 六腑가 자라는데 쌀밥과 생선을 먹어서 혈기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해야 하고, 귀와 눈이 통하여 경락이 순조로워야 한다. 마땅히 몸을 안정되게 해야 하고, 마음을 안정되게 해야 하고, 음식을 절제해야 한다.

임신 5개월은 火의 정기를 받아 태아의 기운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때 태아의 사지가 성장하므로 많이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하며, 옷을 두껍게 입어 한기를 피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말아야 하고, 마른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지나치게 피곤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임신 6개월은 金의 정기를 받아 근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임부는 가벼운 활동을 하여야 하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들로 산보를 가거나 종종 달리는 개의 모습이나 달리는 말의 모습을 보는 것도 괜찮다. 또 맹수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하여야 한다.

임신 7개월은 木의 정기를 받아 태아의 골격이 성장하므로 임부는 마땅히 몸을 움직이고 사지를 흔들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굶었다 퍼는 동작으로써 혈기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 거처를 건조하게 해야 하고, 찬 음식을 피해야 한다. 쌀밥을 늘 먹음

으로써 탄력있는 살결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뼈를 기르고 이빨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한다.

임신 8개월은 토의 기운을 받아 피부가 완성되는 시기이므로 마음을 조용히 하고 숨을 고요히 쉼으로서 기운이 극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피부가 탄력있고 광택이 날 수 있다. 이 시기는 태아의 아홉 구멍이 거의 완성되므로 마른 것을 먹지 말고 배를 고프게 하지 말라.

임신 9개월은 石의 정기를 받아 모발이 완성되며 태아의 육부와 백절이 다 준비되는 시기이다. 단술을 마시고 단 것을 먹음으로써 모발을 기르고 재주와 힘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습하고 찬 곳에 거처해서는 안된다.

임신 10개월은 五臟이 구비되고 六腑가 다 이루어지며 천지의 기운이 단전에 모이는 까닭에 관절과 인신이 다 구비되어지나 다만 때를 기다려 태어난다²⁷⁾.

徐之才의 《逐月養胎方》은 글자 그대로 달별 태아 성장 처방이다.

27) 孫思邈 : 千金要方,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p.18~21.

妊娠一月, 名始胚. 飲食精熟酸美, 受禦宜食大麥, 無食腥辛, 是謂才正. 妊娠一月, 足厥陰脈養, 不可針灸其經. 足厥陰內屬於肝, 肝主筋及血. 一月之時, 血行否澀, 不為力事, 寢必安靜, 無令恐...

그러나 이 養胎方은 단지 태아의 생물학적인 성장에 관한 것만 아니라 태교법까지 말하고 있다. 즉 양태법과 태교법의 결합이 이 逐月養胎方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양태방의 특징은 첫째, 의학자의 임상경험에서 태아의 성장 발육이라는 관점에서 태교를 연구함으로써 이전의 왕실중심의 태교론이나 문인 학자들 중심의 연구나 주장보다도 훨씬 과학적이라는 데 있다. 둘째, 임신 3개월은 태교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있다. 그는 종래의 태교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을 외부 환경 대상에 따른 내적 심리적 감응이란 의미의 ‘外象內感’ 개념으로 발전시켰는데 이 외상내감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임신 3개월부터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임부가 접촉하는 사물에 따라 태아도 변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셋째, 유교적 관점과 도교적 관점의 결합이다. 전통적 음양오행설과 도교의 양생설이 결합하여 양태와 태교론을 형성하였다²⁸⁾.

2) 한국 전통 태교

28) 안경식 : 前揭書, p.140.

중국에서부터 전래된 태교 내용은 한국에서도 일찍부터 아녀자 교육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다. 賢母良妻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전통사회는 아내로서의 삶보다는 어머니로서 훌륭한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역할을 여자에게 더욱 중요하게 부가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은 건강하고 훌륭한 자손을 낳기 위한 방법으로 태교를 엄격히 실천하였다. 특히 이점은 고려 말에 성리학이 전래된 후 그 태교의 내용을 第一 立敎章에 담고 있는 朱子の 《小學》이 유학의 필독서로 되어 가면서 더욱 그러하리라 추측된다²⁹⁾.

중국의 단편적인 태교 기록이 한 구 전통사회에 전래되어 보다 구체적이며 풍요하고 본격적인 태중교육으로 발전하면서, 태교는 아동교육의 첫 단계로 정착되고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전통 태교의 내용을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胎中訓文》

우리나라에서 태교에 대한 기록

으로 가장 오래된 《胎中訓文》은 고려 말기 鄭夢周의 어머니 이씨 부인에 의해 쓰였다. 《胎中訓文》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선철의 지나간 행적을 더듬고 그에 관한 책을 읽으며, 이를 선망하여 항상 부러워하며 나도 그와 같은 위인을 낳았으면 하고 마음으로부터 보통 사람이 행하기 힘든 행동을 해야 한다³⁰⁾.

‘보통 사람이 행하기 힘든 행동’에 태교 금기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잘 실행해야 ‘나도 선철과 같은 위인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행하기 힘든 태교 금기를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을 胎中訓文에서는 부여하고 있다.

(2) 《東醫寶鑑》의 '雜病'편

東醫寶鑑 전 23권중 제 10권 雜病편에는 부인에 관한 부분이 있으며 부인이 임신 전부터 알아야 할 일들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비록 胎敎라는 개념적인 어휘는 사용하지

29) 김명희 : 천도교의 태교 사상,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1, p.52.

30) 주정일 : 태교 출산의 지혜, 서울, 샘터사, 1994, p.28.

않았지만 ‘脈法’, ‘胎孕’, ‘음양교합을 기피해야 할 때’, ‘妊娠脈’, ‘남녀를 분별하는 방법’, ‘임신의 금기법’, ‘약물의 금기법’, ‘임신 중에 조리할 때’ 등으로 임신 시 금기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임신 금기 사항을 임부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내용별로 진술하여 타당성을 입증하려 하였다. 다른 문헌들은 태교 목적을 모체보다는 훌륭한 아기의 출산에 중점을 두었으나, 東醫寶鑑에서는 모체의 심리적 안정 및 건강유지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임부 및 남편의 태교를 중요시했다 하겠다.

(3) 《戒女書》의 ‘자식 가르치는 도리’편

조선 중기의 학자로 인종, 효종, 현종, 숙종 사대에 걸쳐 국정에 참여하였으며 퇴계 이후의 유학을 대표하는 우암 송시열이, 만딸이 출가를 하게 되자 딸의 신상을 걱정하여 수신제가의 범절을 적어준 책이 《戒女書》이다. 《戒女書》는 한글 전 153장으로 되어 있으며 언행의 규범, 효친에 대한 인

식, 혼인의 중요성과 부부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어 어머니의 자식 가르치는 의무를 환기시키는 종합적인 여성 훈육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중 태교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列女傳’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戒女書》의 ‘자식을 가르치는 도리’에서 태교에 관한 부분만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식을 배었을 때도 잡된 음식을 먹지 말고, 기울어진 자리에 눕지 않고 몸을 단정히 가지면 자식을 낳으며 자연 단정한 자식이 태어나느니라. 자식은 어머니를 닮은 이가 많으니, 열 달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 있으니 어머니를 닮고 십세 전에 어머니의 말을 들었으니 또 어머니를 닮게 되니, 어찌 아니 가르치고서 착한 자식이 있겠는가³¹⁾.

라고 하여 모친으로서의 태교 실천은 부녀자의 중요한 임무로서 수행해야 함을 훈계하고 있다.

(4) 《閨閣叢書》의 ‘靑囊訣’편

조선 영조 때 빙허각 이씨가 한

31) 송영달 : 우암선생 계녀서, 서울, 정음사, 1986, pp.12~45.

글로 친히 쓴 여성용 백과사전이다. 이 책은 《胎敎新記》보다 200년 앞서 제작된 것으로 빙허각 전서 3권 중 첫 권이다. 실학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쓰인 이 책은 부녀에 관계된 가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 卷之四 ‘靑囊訣’편에서 태교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은 列女傳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지만 실학의 영향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생활 실태와 결부시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5) 《胎敎新記》

원작자는 柳僖의 어머니인 사주당 이씨이다. 《胎敎新記》는 임부가 태아를 두고 교육하는 세계 최초의 태교 단행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只言敎字에서는 인간의 성품은 선천적이나 기질은 부모에게서 비롯되므로 부모된 자로서 자녀의 교육을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를 논하고 있

다.

제 2장 只言胎字에서는 태교의 효과를 비유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모친을 중심으로 태교를 논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태교란 기르는 자만이 몸 스스로 할 뿐 아니라 온 집안사람들이 서로 조심하여 가족 전체가 임부의 정서적 섭생을 돕도록 당부하고 있다.

제 5장에서는 태교의 중요성을 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태교를 실행하기를 권하고 있다.

제 6장에서는 태교를 행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손해를 말하고 있다.

제 7장에서는 미신 사술을 행하는 사람을 엄히 경계토록 하고 있다.

제 8장에서는 태교의 효과에 대해서 더 상세히 밝히고 있다.

제 9장에서는 옛 사람들이 일찍 태교를 행한 사례들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 10장에서는 태교의 중요한 근본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 1장에서 태교에 임하는 남편, 부친의 마음가짐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은 태교의 구현이 전 가족의 협동과 신뢰 및 사랑에서 이루어짐을 일깨운 내용이라 할 수 있겠으며, 태교에 관한

32) 김양완 : 빙허각 이씨의 閨閣叢書, 서울, 보진재, 1992, pp.325~331.

이론과 실재를 구비하여 태교의 중요성을 체계화한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³³⁾.

사주당 이씨가 《胎敎新記》를 저술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는 연구결과가 있다³⁴⁾. 첫째, 중국의 여범이나 내칙에 태교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만 있지,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이 계통의 저서가 이제까지 없었다. 둘째, 당시에 태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세상에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 셋째, 자기 스스로 4남매를 태교한 경험과 경사에 대하여 널리 통하여 알고 있었던 지식과 서적, 의학서, 세간에 전해 내려오는 설 등도 타산지석으로 모아서 세상 여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다. 넷째, 자녀 교육은 그 후천성을 기르는데 있으며, 먼저 선행하여야 할 바는 태교부터 엄히 실시하는 것이다. 다섯째, 부모 된 자로서 태교를 소홀히 함은 그 스스로의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재래의 태교를 보다 더 발전시켜 새로운 경지를 말한다는 뜻에

서 新記란 두 자를 넣어서 태교 방법을 단편적인 데서 종합적으로 이룩한 것이다. 일곱째, 허다한 자기 저술을 불태우면서도 이 한 책만을 남겨 놓아 부녀자로서의 으뜸가는 의무가 태교에 있음을 알리려고 한 점이다.

당시에는 태교에 관한 전문서적이 없었다. 중국 서적에도 태교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에 비해 《胎敎新記》는 경전에서는 물론 의서에 이르기까지 이 계통의 지식을 집대성하여 장과 절로 구분하고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전체 구성이 태교에 관한 내용이면서도 그 논리가 정연한 전문서적으로 중국의 어느 서적보다도 우수한 세계 최초의 태교 전문서라고 할 수 있겠다.

(6) 《士小節》의 '婦儀'편

조선 영조와 정조 때 한문학의 사대가중 한 명인 李德楸가 예의 범절을 숭상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도덕적인 사회생활을 지키기 위한 사소한 예절을 들어, 남성과 여성과 아이들의 수신서로 만든 책이다.

33) 임동근 : 태, 서울, 우성출판사, 1996, p.265.

34) 권영철 : 胎敎新記 연구, 대구, 효성여자대학, 1996, p.159.

그 내용은 남자의 예법, 부녀자의 예절, 어린이의 규범 총 8권으로 되어있고 그 속에 924가지 사실을 넣어 만든 것이고, 태교에 관한 내용은 제 7권 ‘婦儀’ 교육편에 실려 있다. 태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 뱀 부인이 일상 몸가짐과 음식을 삼가지 않으며, 그 자식으로 하여금 일찍 죽고 또 병들게 한다. 아이 뱀 부인이 짐짓 태임의 태교하는 가르침을 범함은 현숙한 행실이 아니요... 잉태와 순산은 하늘의 명에 의한 것이지...35)

부녀자의 예절 ‘부의’편은 성품과 행실, 언어, 의복과 음식, 행동거지, 교육,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태교의 내용이 간략하게나마 ‘교육’편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은 아동교육에 앞서 태아교육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부분이라 하겠다.

(7) 《海月神師法設》의 ‘內則’편

인간교육은 태교에서 발단된다고 보았던 한국 전통사회의 생각은 근세에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는 증거로서 천도교의 경전을 들 수 있다³⁶⁾.

천도교의 경전 《海月神師法設》중 태교에 관한 수도법으로 ‘內則’이 있다. 이는 천도교의 제 2대 교주인 최시형이 신도를 가르치기 위해 남긴 것으로서, 이 중에서 태교에 관한 내용은 음식, 언어, 행동 등 심신의 수련 및 절제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태하거든 육종을 먹지 말지는 해어도 먹지 말며 지렁이와 가재도 먹지 말며 물론 아무 고기라도 먹으면 그 고기의 기운을 받아 사람이 나서 모질고 악하나니라.

일삭이 되거든 기운 자리에 앉지 말며 잠잘 때 반듯이 자고 모로 눕지 말며 김치와 채소와 떡이라도 기울게 썰어 먹지 말며 위태로운 데 다니지 말며 지름길로 다니지 말며 남의 말 하지 말며 무거운 것을 들지 말며 경한 것이라도 중한 듯이 들며 방아 찧을 때 어렵거든 찧지 말며 너무 뜨거운 것도 먹지 말며 너무 찬 것도 먹지 말

35) 김중권 : 사소절, 서울, 명문당, 1997, pp.241~242.

36) 유안진 : 前揭書, p133.

며 기대어 앉지 말며 비켜서지 말며 남의 눈을 속이지 말라.

이같이 아니하면 사람이 나서 일찍 죽거나 병신도 되나니 이 여러 경계하는 말씀을 잊지 말고 이같이 심삭을 공경하고 믿음하고 조심하오면 사람이 나서 체도도 바르고 총명도 하고 기국과 재기가 삶에 넘칠지니 부디 그리 알고 각별 조심하옵소서³⁷⁾.

천도교에서는 태교를 구체적인 실례로서 도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한말의 민중자각 운동이었던 동학에서도 부녀들에게 ‘내수도문’을 통한 태교 사상의 생활화 강조는 태교에의 관심이 결국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민중의 생활과 의식 속에서도 시대의 교육의식이나 임부의 새 생명 맞이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韓國 傳統胎敎 禁忌 分析

《東醫寶鑑》 ‘구사’의 첫머리에 “사람이 사는 길이 자식을 구하려는데 시작이 되고”³⁸⁾ 라는 말이

37) 김달수 : 천도교재(설정·주석), 서울, 서북영우회, 1995, pp.322~323.

38) 김영복 : 東醫寶鑑 역, 서울, 근영출판, 1992, p.561.

있다. 이는 한국 전통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 키우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부모 됨은 중요했고, 그에 따라 임신을 위한 합방은 가계 계승권자의 잉태와 노동력 증강, 가문 및 씨족의 번창 등 단순히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부부 합방의 일차적인 목적은 수태에 있었고, 이왕이면 남아를 수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부부의 합방 시기와 장소를 엄격히 구분해 놓았다. 특히 임신을 위한 합방일 경우는 더욱 엄격히 시와 장소를 가려 교합을 가져야 했다. 이는 옛사람들이 대자연을 받들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음양의 교합인 성행위 또한 천지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가장 조화로운 날 합방을 해야만 부정을 면할 수 있다 생각했던 까닭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의 변화에 주의를 하지 않고 방만하면 재앙이 따른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삼가고 금하며 조심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개 천기, 지기, 인기라고 호칭되어 오는데,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전통태교에서는 이 셋 등으로 금기 사항을 나누어 지켜야 할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1) 天忌

天忌란 총명한 자손의 수태를 위해 음양교합을 기피해야 할 日氣와 日辰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禮記》‘月令’에 따르면 “(2월에는) 우레가 소리를 내서 운다. 몸가짐을 삼가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자식을 낳아도 온전하지 못하며 반드시 재앙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천기에 대해 서술해 놓은 중국 최초의 문헌이다. 음양교합은 자손을 잇는다는 숭고한 사명이면서도 대자연의 어떠한 힘에 의해 재앙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련의 금기를 낳게 된 것이다.

《東醫寶鑑》‘부인문’과 《胎教新記》‘지언교자’장에는 陰陽交合을 기피할 때를 다음과 같이 실고 있다.

대개 남녀의 교합을 마땅히 丙,丁일과 보름 및 초하루와 그믐 및 大風, 大雨, 大霧, 大寒, 大暑, 大雷電, 大霹

靨, 天地海冥, 日月蝕, 虹霓, 地動할 때는 기피해야 하니 어지면 사람과 신에 손이 되고 길하지 못하며 남자는 백배나 손상을 하고 여자는 병을 얻게 되며 자식을 낳아도 틀림없이 愚鈍하거나 癲癩하거나 瘡癩하거나 犢犢하거나 盲眇하거나 병이 많으며 오래 살지 못하고 불효불인한 것이다³⁹⁾.

일식과 월식이 있거든 아내 방에 들지 말며 크게 덥거나 춥거나 큰 바람이 불거나 큰 비가 오거나 큰 뇌성이 나는 그럴 때는 감히 아내 방에 들지 말고...⁴⁰⁾

이러한 금기는 자연현상과 관련된 금기라 할 수 있다. 변화가 심한 자연현상의 경우를 피하는 것은 합방이 단순히 남녀의 교합이 아닌 대를 잇는 신성한 의식의 과정이며 불길하다고 생각되는 날을 피함으로써 남녀 간의 교합으로 인한 정신적 방만을 제한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장차 잉태할 아이의 총명과 무병장수를 소원하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자연현상이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

39) 김영복 : 前掲書, p.564.

40) 한재찬 : 태교신기 역, 서울, 성보사, 1976, p.28.

적으로 합방의 금기사항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문화교류를 통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자연의 변화에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경계심 또는 자연을 섬기는 동양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금기 사항이라 하겠다.

이는 일기가 정상기후가 못될 때, 사람의 신체 및 심리 조건이 기후에 영향을 받아 불안의식, 죄의식, 호르몬 분비 등으로 합방 시 심신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긴장, 스트레스 등이 임신 조건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현대적 입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⁴¹⁾.

2) 地忌

地忌란 잉태장소의 선택과 관련된 것으로,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좋은 자녀의 출산을 위하여 배우자의 선택 및 잉태 장소의 선택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임신 후 집안의 금기 장소 등에서 각별히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전통사회의 대강령이었던 유교윤리에서 혼인은 건강한 가계 계승자를 출산하기 위한 우생학적 결혼 관행을 따랐다. 즉 同姓同本 不婚, 白里內의 不婚 및 越三姓의 結婚이 곧 그것이었다. 즉, 동시조에서 확대된 후손끼리의 혼인을 막음으로써 혈통에서 기인되는 열성적 유전요인끼리의 결합을 예방하려 했고, 지리적 특성에서 발생 가능한 열성 요인의 결합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⁴²⁾.

전통사회에서 白里內 不婚의 결혼 관행이 실시된 근거는 《통혼권 연구결과》에서 발견된다. 즉, 양반일수록 통혼권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반 중에서도 가격이 높을수록 100리 이상의 遠婚이었다⁴³⁾.

한국 전통사회는 우생학적 안목에서 지역 외 혼인이 권장되었다. 즉, 백 리 밖의 혼인은 지리적인 특성이 비슷한 데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병 요인끼리 결합되면, 이런 요인을 더 많이 지닌 자손이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지리적 풍토적 특성

41) 하수연 : 前揭書, p.34.

42) 유안진 : 前揭書, p.60.

43) 上揭書, p.22.

에서 생겨나는 약체 요인의 결합을 방지하여 열성의 유전자를 가진 자손을 예방하려는 지혜로운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역마다 특수한 풍토병이 있고, 직접적인 질환으로 나타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잠복되어 전해지는 질환도 있다. 이러한 요인끼리 결합되면 보다 강한 것이 되어 열성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가 있음을 염려해서 백 리 내의 결혼을 금기했던 것이다. 동성동본 금혼도 부계혈통이 지닐 수 있는 열성의 유전요인끼리의 결합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자손을 출산하려는 우생학적 결혼관행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성의 자손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부계혈통의 유전자끼리 결합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결합을 예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따라서 모계의 혈통에서 기인될 수 있는 열성요인의 강화를 억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월삼성의 결혼관행이 생긴 것이다.

월삼성의 원칙이란 모계의 성씨를 적어도 3세대에 걸쳐 건너 뛰어 결혼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같은 성씨 삼사대가 혼인하면 모계

혈통에 잠복되어 있을지 모르는 열성 유전자가 대를 거듭할수록 중복되어 강화될 것을 염려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세 가지 우생학적 결혼관행은 훌륭한 자손의 임신과 번창을 염두에 두고 지켜졌다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지기와 관련한 금기를 관행으로 지켜왔다고 본다⁴⁴⁾.

3) 人忌

人忌란 임신을 준비하거나 잉태해서 출산할 때까지 태어날 아기를 위해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삼가고 조심해야 할 모든 행동 즉 몸가짐, 마음가짐을 모두 다 포함한 생활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임부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태아에게 전달되어 장차 태어나게 될 아기의 건강과 장수, 성격과 운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때문에 몸가짐, 마음가짐 등에서 삼가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 특히 많았다.

(1) 衣와 관련된 금기

44) 上揭書, pp.20~21.

《東醫寶鑑》에서는 “옷을 너무 두껍게 입지 말고”⁴⁵⁾, 《閨閣叢書》에서는 “무릇 아기 가진 아낙네 옷을 너무 덥게 말고”⁴⁶⁾, 《胎敎新記》에는 “옷을 너무 덥게 입지 말며”⁴⁷⁾라며 임부가 이미 아이를 임신하면 옷과 관련하여 삼가 조심해야 함을 들고 있다.

(2) 食과 관련된 금기

임부의 식생활은 태아의 발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예부터 임부의 섭생 중 식생활에 특히 많은 주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금기시켰던 음식도 많았다. 전통태교의 내용 중 음식금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大戴禮記》에서는 지나치게 맛있으나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왕태자에게 올릴 수 없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으며, 《小學》‘내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열너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 부인이 자식을 임신하면, …간사한 맛

을 먹지 아니하고, 썩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고…⁴⁸⁾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금하고, 바른 모양의 것을 먹으려 함은 태어날 아기의 용모 및 성품이 그러하였으면 하는 기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東醫寶鑑 10권 婦人門 중 음식의 금기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마의 살을 먹으면 달을 넘기고 난산을 하게 된다. 개고기를 먹으면 아기가 말을 못하게 된다. 토끼 고기를 먹으면 자식의 입술이 찢히고, 비늘이 없는 고기를 먹으면 난산이 된다. 게를 먹으면 황산하게 되고, 양간을 먹으면 아이에게 재앙이 많으며, 닭고기와 계란에 찹쌀을 합해서 먹으면 아이에게 촌백충이 있고…⁴⁹⁾

태아의 성장 및 태어난 아기의 모습 등은 임부의 음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보고, 자극적이고 특이하거나 몸에 해가 갈 수 있는 음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병이 난 후 치료하는 치료 의학적인 면에 대해 임부가 음식

45) 김영복 : 前揭書, p.569.

46) 김양완 : 前揭書, p.325.

47) 한재찬 : 前揭書, p.76.

48) 박일봉 : 소학 역주, 서울, 육문사, 1997, p.20.

49) 김영복 : 前揭書, p.568.

물의 특징이나 형상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이 나거나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자는 예방의학적 측면을 가진다 하겠다.

약물의 금기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래에 말하기를 ‘원묘, 수질 및 망충과 오두, 부자, 천응에 야갈, 수은, 파두를 아울러 우술, 의이오공을 이어서 삼릉, 원화사와 대극, 황자웅과 아초, 망초, 모단계에 괴화, 전우, 조각을 같이하여 반하, 남성 및 통초에 구맥, 건강, 해조갑과 망사, 건칠 및 도인과 지담, 모근을 쓰지 말라.’

또한 정축화, 누고, 우황, 여로, 금박, 호분, 석척, 비생, 선각, 용뇌, 위피, 귀전우, 저계, 마도, 의어, 대산, 신국, 유자, 서각, 대황 등을 피한다⁵⁰⁾.

《東醫寶鑑》 ‘부인’편에서 태교는 임신 과정과 태중 단계별 유의사항 등 임신 중의 제 주의사항을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음식금기와 마찬가지로 약물복용으로 인한 질병, 또는 태아의 이상과 관련하여 예방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胎教新記》에서도 “망령되어 침 맞고 뚝뜨지 말며 함부로 탕약을 먹지 말며”⁵¹⁾라고 하여 임신 중 약물복용이 당시 사회에서 태아의 안태와 보태를 위하여 삼가야 할 사항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閨閣叢書》에서도 東醫寶鑑에서와 같이 음식금기 뿐 아니라, 임부의 약물복용은 임부와 태아를 위한 보약일지라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해로우니 정확한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⁵²⁾.

東醫寶鑑, 胎教新記, 閨閣叢書 등에서 음식물 섭취와 관련된 금기 음식물은 대부분 유사 연상적 사고에 의해 태아가 그 음식물의 외적인 특징을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장차 태어날 아기가 기형아, 정신지체아, 조산아 등으로 태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총체적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임부의 식생활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였다⁵³⁾.

51) 한재찬 : 前揭書, p.77.

52) 김양완 : 前揭書, p.325.

53) 유안진 : 한국 전통사회의 육아교육,

50) 上揭書, pp.568~569.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임부에게 불결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이나 음식 자체의 성질이 냉하여 태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과 상하거나 정상시기가 아닌 때의 식품은 복용을 금하였다. 임부의 금기 식품에 대한 전통사회의 견해는 음식 자체의 불결성으로 질병 유발이 가능하다고 보았거나 불결한 음식물로 임부의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점이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임부의 생활에 대해 음식이 태아의 발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많은 주의를 하도록 금기했던 음식이 많으며, 여러 문헌에서도 금기시한 음식들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음식금기에 있어 한국이 중국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⁵⁴⁾.

(3) 住와 관련된 금기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당시 사회의 사고 및 신앙체계에 근거하여,

前掲書, p.182.

54) 고미향·정상아 : 정신박약아 부모의 태교실천에 대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83, p.18.

임부의 임신을 해하는 살기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런 살기를 胎殺이라고 불렀는데, 특정 장소에 특정 달, 그리고 날짜에 이런 胎殺이 요동한다고 생각했다. 임부는 태아의 건강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장소에 출입을 삼감으로서 건강한 출산을 원했다. 그러므로 임부는 胎殺이 요동하는 달과 날짜와 그리고 때를 피하도록 요구되었고, 또한 胎殺기가 움직이는 특정의 장소를 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閨閣叢書의 청낭결 편과 東醫寶鑑에 기록된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⁵⁵⁾. 《閨閣叢書》의 ‘청낭결’ 편에 기록된 태살금기는 집안의 위험한 장소와 방위,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금기시하고 있다.

아기 가져서는 태살 노는 곳을 일절 피하고 금기하여야 하니, 비록 이웃집에서 달구고 고칠지라도 임부 마땅히 피해야 하니, 칼에 범한 자는 형체가 반드시 상하고 흠에 범한 자는 구멍이 막히고 매질한 자는 빛이 푸르고 검으며, 동여매인 자는 서로 달려 오고라 지고, 비록 태 떨어지지 않으나 아이가 모양이 이지러지고 빛이 푸르며 破窺塞하여 혹 일찍 죽으니 그 징험이

55) 유안진 : 前掲書, p.189.

손을 뒤침 같으니 가히 경계할만하다.(太殺禁忌)

정월 방과 침상에 있고, 이월 창과 지계문에 있고, 삼월 문과 당에 있고, 사월 부엌에 있고, 오월 몸과 침상에 있고, 유월 상과 곳집에 있고, 칠월 방아와 맷돌에 있고, 팔월 텃간과 지계문에 있고, 구월 문과 방에 있고, 시월 방과 침상에 있고, 십일월 화로와 부엌에 있고, 십이월 침상과 방에 있다.(月遊太殺所在)

갑기일 문에 있고, 을경일 방아와 맷돌에 있고, 병신일 우물과 부엌에 있고, 정임일 부엌과 헛간에 있고, 무계일 곳집에 있다.(日遊太殺所在)

자축일 중당에 있고, 인묘진유일 부엌에 있고, 사오일 문에 있고, 미신일 을밀에 있고, 슬해일 방에 있다.(十二支日遊太殺所在)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일 방안 북, 계묘일 방안 서, 갑진 을사 병오 정미일 방안 동, 육무 육기일에 방안 가운데 있고, 경자 신축 임인일 방안 남(房中日遊神所在)⁵⁶⁾

(4) 行과 관련된 금기

① 행동 금기

인간은 누구나 태내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므로 잉태 시에 조심

56) 김양완 : 前揭書, pp.329~331.

하고 삼가며 절제하여야 한다. 태내인 선천 즉 수태공간에서 태아는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선악의 마음가짐 등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을 준비한다⁵⁷⁾.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임부에게 금기 행동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小學》 ‘내편’ 제1편의 입교 열녀전에서는, “옛날에 부인이 아이를 배면 잠잘 때에 몸을 기울게 하지 아니하며, 앉을 때에 한 쪽에 치우치게 하지 아니하며, 설 때에는 한쪽 발에만 의지하지 아니하며”⁵⁸⁾, 《東醫寶鑑》 ‘婦人門’ 중 임신 중에 조리할 때에는, “무거운 것을 들고 높은 데나 위험한 곳을 오르지 말며 힘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누워있지 말며 걸음을 걷고 마음에 놀라는 일이 있으면 아이에게 전간이 생긴다. 산달에 머리를 씻지 말고 너무 높은 변소에 들어가는 일을 삼가야 한다.”⁵⁹⁾라고 실고 있다.

57) 정정혜 : 한국 전통사회의 태교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대학원, 1988, p.40.

58) 박일봉 : 前揭書, p.20.

59) 김영복 : 前揭書, p.569.

《戒女書》에는,

자식을 배었을 때도 기울어진 자리에 눕지 말고, 몸을 단정히 가지면, 자식을 낳으면 자연 단정한 자식이 태어나리라. 자식은 어머니를 닮은 이가 많으니, 열 달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 있으니 어머니를 또 닮게 되니, 어찌 아니 가르치고서 착한 자식이 있겠는가⁶⁰).

라고 하고 있다. 태아는 어머니에 의하여 성장, 발달하기 때문에 자녀가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부의 몸가짐을 절도 있고 안정되고 신중하게 해야 함을 들고 있다. 그만큼 어머니 즉 임부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가능 하겠다.

《閨閣叢書》에서는

힘에 겁에 일하며 과히 상하게 말고, 지나치게 성내서 기운 쓰거나 애 태우지 말고, 때때로 거닐어라. 크게 놀라면 아기가 간질 한다. 달친 뒤 머리 감거나 발 씻지 말고 높은 뒹간에 오르지 말라. 나이 어려 기운이 약한

자와 늙어 혈기부족한 사람은 비록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태가 흔들리기 쉬우니 어찌 방비하지 않을 수 있으랴⁶¹).

라고 하여 중한 노동을 금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운동 부족과 비만과의 관계를 염려하여 태아의 과 성장 방지 및 출산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입장에서 적당한 운동을 권하고 있다. 특히 고령 임부와 나이 어린 임부들은 행동을 주의하여 유산이나 조산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즉, 임부의 손상이나 위험으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라 하겠다.

《胎敎新記》 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임부가 거처하고 섭양함에 조심치 못하면 태를 보전하기 위태롭도다... 임부가 만일 일불 사람이 없거든 임부의 능력에 될 만한 일을 가리어 일할 따름이로되 그러나 친히 누에 치지 말며 직조기에 올라 짜지 말며 바느질하는 것도 조심하여 바늘에 손이 상케

60) 송영달 : 前揭書, pp.20~21.

61) 김양완 : 前揭書, p.325.

하지 말며 식찬 만드는 것을 조심하여 그릇이 땅에 떨어져 깨지게 말며 찬물이나 장에 손을 적시지 말며 벨만한 물건이거든 베기를 반드시 바르게 벨지니라.

...임부의 자거나 눕는 법은 잘 때 없다하여 자지 말며 눕는 것은 송장처럼 눕지 말며 문등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나니 문틈을 향하여 자지 말며 아무것도 덮지 않고 몸을 드러내고 눕지 말며 몹시 춥거나 크게 덥거든 낮잠 자지 말며 배불리 먹고 자지 말며 아기 낳을 달이 차거든 옷을 모아 곁에 쌓아놓고 반밤을 왼쪽으로 누워 자고 반밤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으로 습관을 만들라⁶²⁾.

금기하도록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동이 임부가 쉽게 행하는 행동들로,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위협과 손상을 입히는 불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일상생활에서 임부 자신의 언행과 몸가짐, 걸음걸이를 항상 조심하여 임부와 태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임부가 구태여 일 맡길 일이 없는 것은 그 할 만한 것을 가려서 할 것이오’는 임부가 심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를 하지 않도록

주위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나타내며, 본인 스스로도 할 만한 일을 가려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이라 하겠다. 《海月神師法設》에서도 “무거운 것을 들지 말며 경한 것이라도 중한 듯이 들며, 방아 짙을 때에 어렵거든 짙지 말라”⁶³⁾고 하여 과로로 인한 조산 및 유산을 염려하며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전통 태교에서는 임신 중 걸음걸이, 앉음새, 운동량, 행동거지 모두를 조심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행동 금기는 긍정적 입장에서 보면 임부의 행동에 대한 처신을 특히 강조한 것들로, 새로운 생명을 태내에서 기르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의 지나침, 그릇됨 등으로 부정이 생기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태아에게 초래할 수가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행동금기는 모종의 예상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예방적 차원의 일면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금기는 실제 임부로 하여금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임부의 활동범위와

62) 한재찬 : 前掲書, pp.76~85.

63) 김달수 : 前掲書, p.173.

노동 강도를 제한함으로써 태아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② 정서적 금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건강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닌 총명한 아기의 출산을 위해 음식, 행동거지, 몸가짐 등에 특별한 주의와 정성을 쏟았다. 이 모든 것이 태교를 중시했던 까닭이며, 아울러 훌륭한 아기를 낳으려면 신체적인 건강과 위생 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유향의 《列女傳》에서는

임신을 하였을 때는 반드시 감응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선한 것에 감응되면 태어나는 아이도 선하게 되고, 악한 것에 감응되면 악하게 된다. 인간은 태어날 때 만물을 닮게 되는데 이는 다 그 어머니가 만물에 대해 감응함으로써 태어나는 아기의 형태와 말도 만물을 닮게 되는 것이다⁶⁴⁾.

라고 하여 결국 임부가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임부에게 나쁜 환경에 접

촉하지 않도록 근신을 요구했고, 임부는 행동 뿐 아니라 마음가짐도 삼가 조심하여 올바른 품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大戴禮記》에서는

태속에 있는 자식의 교육하는 방법을 옥돌에 새겨서 황금의 상자에 간직해서 임금님의 조상을 모시는 사당에 두고 그것으로 후세의 경계가 되도록 한다. …태사가 구리 피리를 갖고 문 왼쪽에 서고, …그 후 3개월을 맞이하면 왕후가 듣게 되는 노래와 음악은 그것이 예법에 있는 음악이 아니면 태사는 거문고를 자루에 넣고 ‘그러한 것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고 거절한 다⁶⁵⁾.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음악도 가려서 들어야 함을 시사한다. 좋은 음악을 들으며 성현의 덕행을 추모하고 자연에 심취하여 고상한 기품을 기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임부 자신에게나 태어날 아기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東醫寶鑑》 ‘부인문’에서는 “수태한 다음에 살상하는 것을 보지

64) 유향 : 前揭書, p.11.

65) 上揭書, pp.388~392.

말고 또한 이웃집의 수선하는 것도 보지 말아야 한다”⁶⁶⁾, 《閨閣叢書》‘태중장리법’에서는 “지나치게 성내서 기운 쓰거나 애태우지 말고”⁶⁷⁾, 《내훈》에서는 “마음속에 느낀 생각이 선하면 선한 자식을 낳게 되고, 마음속에 받아들인 느낌이 나쁘면 나쁜 자식을 낳게 된다. 사람이 태어날 때 모든 만물을 닮게 되는 것은 모두 그 어머니가 만물에서 감응을 받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얼굴이며 소리가 닮게 되는 것이다”하여 임신을 하였을 때는 반드시 마음에 받아들이는 느낌을 조심스럽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胎教新記》‘태교지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태교를 양하는 것은 임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사람들이 항상 조심하고 삼가서 분한 일을 만들지 말 것이니 임부가 성낼까 두려워함ियो 어려운 일을 주지 말지니 임부가 걱정할까 두려워함ियो 급한 일을 만들지 말 것이니 임부가 놀랄까 두려워 함이니라, 즉 임부가 성내면 아이가 자라서

혈병을 앓고 임부가 무서워하면 아이가 자라서 정신병을 앓고 임부가 근심 걱정을 하면 아이가 자라서 기병을 앓고 임부가 놀래면 아이가 자라서 간질병을 앓나니

벗들과 오래 같이 놀면 그 벗들의 말투도 배우게 되고 행동까지도 따라 배울 수가 있는데... 임부 곁에 항상 선한 사람을 두어 임부의 일어나고 앉음을 도와주고 임부의 마음과 뜻을 기쁘게 하여 모범 될 만한 말이나 모범 될 만한 일을 늘 귀에 떠나지 않도록 하여 게으른 마음이나 거만한 마음이나 사특한 마음이나 편벽된 마음이 날 데가 없게 할지니라

...의원을 청하여서 약을 먹으면 병은 낫게 할 수 있지만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으며 정한 방에서 고요히 있으면 태는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배 속에 있는 아기의 자격은 양성치 못할 것이니 배 속의 아기는 어미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요 어미의 피는 마음 쓰는 것을 따라 움직이나니 어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아기의 사람 된 것도 역시 바르지 못할 것이고 임부의 마음이 바르면 아기의 사람 된 것도 역시 바르리라⁶⁸⁾.

《胎教新記》에서는 임부 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 주위 사람들

66) 김영복 : 前揭書, p.568.

67) 김양완 : 前揭書, p.325

68) 한재찬 : 前揭書, pp.54~74.

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까지도 지적하여, 대인 관계에서도 바람직하게 행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임부의 마음가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임부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말하는 도리까지도 밝히고 있다. 이는 임신 중에 조급하거나 자기 뜻에 맞지 않다고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언행을 삼가고 조심해서 몸가짐, 마음가짐에 신경을 써 건강한 정신과 올바른 품성을 지니게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임부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 태아의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태아에게 나쁜 행동의 대가가 가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海月神師法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같이 아니하면 사람이 나서 조사도 하고 횡사도 하고 병신도 되니 이 여러 경계하는 말씀들 잊지 말고 이같이 심박을 공경하고 믿고 조심하면 사람이 나서 체도도 바르고 총명하고 기극과 재기가 사람에 지날 것이니 부디 그리 알고 각별 조심하옵소서⁶⁹⁾.

형체와 얼굴 모양이 단정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외적인 모양새에 이상이나 기형의 문제가 없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주와 덕이 뛰어나다 함은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로 사료되어, 태교가 후손을 위한 교육과 건강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같이 임신 10개월을 경계하고 조심하여 태어나는 아기는 다른 여러 사람과는 용모와 성품, 총기가 다른 점이 있게 되니, 태교에서 금하는 바를 어렵지만 실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사회의 모성 태교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정서이며, 언행 행동 및 음식금기까지도 임부의 정서를 고려한 것이 많다. 특히 임신 3개월부터는 정서적 수양을 특히 강조하여 임부에게 분한 일, 흥한 일, 어려운 일, 급한 일을 들려주지 않았고 불구자나 병든 자를 보지 않게 하였으며, 음욕, 우울, 투기, 욕심, 험담, 간사함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4) 남편의 금기

69) 김달수 : 前揭書, p.173.

대체로 모친의 태교에 관해서는 많이 강조가 되어온 반면, 남편의 태교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다. 그러나 씨족의 가문을 중히 여긴 전통사회에서의 남성에게 지워진 가장 중요한 것이 잉태의 의무이며 자손을 잘 두려는 조상들의 염원이 태교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태교는 임부만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임신 이전의 심신 관리를 강조한 《東醫寶鑑》의 내용과 《閨閣叢書》, 《胎教新記》 등에 강조된 합방시의 기피 사항과 보다 본격적으로 남편의 참여를 강조한 《胎教新記》의 내용을 고찰해 볼 때, 태교란 남편에게도 요구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남편이 지키고 노력해야 할 금기 사항도 제시되고 있다.

《胎教新記》의 서두에 보면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어미 10달 기름만 못하고 어미 뱃속에서 10달 기름이 아비 하루 正心한만 못하다.

하여 태중에 있을 때 임부의 가르침이 아이가 태어난 뒤에 하는 가르침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이며,

임부의 10달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남편의 하루 正心함이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출생 후보다는 임신 기간을 중시하며 특히 수태 당시를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여 아버지, 즉 남편의 수태를 위한 태교를 강조한 것이다.

(1) 잉태 전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태교의 수행 기간을 임신 이전 임신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기까지를 태교기간에 포함시켰다⁷⁰⁾.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한 한국의 가부장적 전통사회에서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주로 노동력과 가문을 위한 아들에 대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건강하고 총명한 아기를 낳기 위해 부체와 모체는 심신이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전통사회의 생각이었다. 즉, 임신을 기대하는 부부의 임신 전 태교는 부부가 건강을 갖추음으로서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기형 발생을 예방하며, 건강하고 장래에 크게 될 아기의 잉태를 위한 부부의 신체

70) 유안진 : 前揭書, p.151.

적 정신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아버지 될 사람의 건강한 심신을 위해서는 保精을 강조하였다. 보편적인 교육의 장이었던 서당에서도 태교가 중요 부분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곳에서는 논어 공부를 끝낸 학생들에게 보정이란 생리철학을 가르쳐 주었다. 전래되는 습속 중에는 擧風과 籟風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保精法의 하나로 일정한 날을 정해 상투를 풀어 동풍이나 남풍에 빗질하고 난 뒤 아래바지를 벗고 하체를 노출시킨 다음 햇빛이 내려쬐는 정상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 풍속이다. 이는 태양의 정기를 받아 정력을 보강한다고 믿었던 습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모가 결혼하기 전의 손자에게 보정일진을 가르친 후 암기했는지 여부를 시험까지 치는 풍속도 있었다고 한다⁷¹⁾. 이것은 정을 보전하는 방법으로서, 택하는 길일과 꺼리는 기피 일을 밝히는 것으로, 임신 이전의 성교육과 교양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임신 이전의 성장 과정에서 남성은 누구나 장차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전체로 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東醫寶鑑》 ‘구사장’에서는

사람이 사는 길이 자식을 구하려는 데 시작이 되고…인태 전 모체는 월경이 정상적이어야 하고 마음이 온전하여야 하며 부체 역시 정이 충실하고 욕망을 조절하여 마음을 맑게 가지는 것이 자식을 두는 상책이다⁷²⁾.

라고 언급하고 있다.

(2) 잉태 시

건강하고 총명한 자식을 얻기 위해 한국 전통태교에서는 시와 장소 음양 교합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합궁 일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잉태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아기의 잉태를 위한 목적으로 남편의 건강한 신체 조건과 정성스런 태도를 강조하여 남편의 도리를 제시하고 있다.

《胎敎新記》 제 1장 ‘지언교자’ 장에는

71) 정정혜 : 前揭書, p.27.

72) 김영복 : 前揭書, p.561.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의 길러주심, 스승의 가르침이 다 한 가지이다... 특히 잉태 시 아버지의 청결한 마음가짐은 어머니의 10개월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 안방이 아니면 자지 말고 몸에 병이 있거나, 집안에 근신해야 할 기간이나, 음양이 고르지 않고 하늘 기운이 예사롭지 않거나, 헛된 욕망이나 요망스럽고 잔악한 기운이 몸에 붙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식을 갖는 아버지의 도리다. ... 그러므로 아이의 기운과 피가 맺히어서 맑지 못함은 부친의 허물이요...73)

라고 하여 태교를 하려면 남성부터 정심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라고 보고 있다.

(3) 잉태 후

전통사회의 남편들은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언어와 행동을 삼가고 분별 있는 사고와 행동을 하려고 하였으며 살생을 금하였다고 한다.

《東醫寶鑑》‘婦人門’ 임신의 금기법에서는 “일단 수태가 된 다음에는 남녀의 교합을 금해야 된다”74)고 밝히고 있다. 《胎教新

記》3장 ‘비론태교’에서는 “짐승들도 새끼를 배면 수놈과 교미하는 것을 금하고”75)라고 하여 임신 중에 성교를 금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람일 경우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남편의 태교와 금기 사항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인간됨은 물론이고 그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을 정도로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전통사회에서 남편의 잉태 전후의 심신관리 및 잉태 중의 주의 사항 등은 지금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V. 考 察

환경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여 임부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태아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전통사회의 태교는 그의 실천을 통해 건강하고 자질이 뛰어난 아기를 낳기 바란데서 시작되었다. 이

73) 한재찬 : 前揭書, pp.19~21.

74) 김영복 : 前揭書, p.567.

75) 한재찬 : 前揭書, p.50.

렇게 되기 위해 임부 및 그 가족들은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 삼가고 조심하는 금기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보인다. 전통 문헌을 통해서 살펴본 임부 및 그 남편의 태교의 금기 사항이 어떠한 특성과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태교 금기의 특성

금기는 인간의 오랜 관습에서 발생했으며, 인간의 집단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했다 할 수 있다. 금기란 심리적 요소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위대한 존재 앞에서 자신의 위험한 감정 즉,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과 자신이 약해졌을 때 느끼는 위험한 감정이 상징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천기, 지기, 인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전통사회에서는 질병과 사고, 천재지변 등이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초자연적 대상에 의해 발

생한다고 보았다. 음식과 사물과의 유사 연관성에서의 금기, 태살이 있는 곳의 주의 등은 인간의 심리 주변에 깔린 두려움과 초조함이 일상생활에서 삼가고 조심하는 차원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생명의 잉태와 관련하여 초인적 힘의 분노를 사거나 생명의 잉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러한 결과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물건, 자연현상, 특정한 날, 특정 행위가 태교시 금기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자연현상과 일체의 탄생과 관련된 의혹스런 점과 탄생에 관한 의비의 근원을 모두 초자연적 역량으로 돌리고 다만 그것을 받들고 믿고 두려워했다. 이런 숭배와 경외감, 신성화, 주술적인 면들이 일종의 약속, 즉 금기로 뿌리내린 것이라 하겠다.

한편, 태교 금기는 법률상, 도덕상 법령과는 달리 표현 양식과 내용이 애매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이해할 수 없는 외경의 대상이 되어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금기의 본래 성질이 그렇듯이 태교 금기 역시 애매하고 분명치 않은 부분이 많을뿐더러 원인과 이유도 없이 금기 사항으로 지키도록 요구되었다. 태교 금기는 근원을 파헤치기 어려운 내재된 신비성과 생명을 잉태한다는 사명감이 금기를 지키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게 하고 있다고 본다.

위에서의 여러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 태교 금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共同 規律性이다. 태교 금기는 공동 규율적인 면이 있다. 일반적인 금기 사항 등은 금기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초래한 징벌에 대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많으나, 태교의 금기 사항의 저촉은 임부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태를 기르는 임부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공동 규율의 성격을 가진다 하겠다.

둘째, 限時性이다. 태교의 금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아이를 잉태하기 전 아이를 원하는 근자에서부터 출산을 맞이하는 시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금기 사항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한시적 성격을 지닌다 하겠다.

셋째, 豫防性이다. 앞서 살펴본 금기의 특성들은 ‘혹시라도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쁜 일’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을 모두 전제로 하고 있다. 특정행위가 불유쾌하고 불행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가져왔고 또 그러한 것들이 예상되었기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서 예기되는 불행한 결과를 면하려고 하는 경험에 의한 것이다. 자식교육을 마땅히 출생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스승의 10년 교육보다는 어미 뱃속 10달 기름을, 뱃속 10달 기름보다는 아비 하루 밤 정심을 중요시했고, 그보다 앞서 배우자의 선택이 중요함을 누차 강조해왔다. 비교육적이거나 좋지 않은 환경은 미리 막는다는 이러한 입장은 생활 속의 절제, 금기 사항 준수 등으로 예방적인 면을 기저

에 두고 생각한 점이라 볼 수 있다.

태교 금기 사항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금기는 오랜 인간의 경험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 규약적인 면을 가진다고 본다. 태교 금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나,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가지면서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2. 금기의 원리

전통사회에서는 생명의 탄생을 인간의 힘으로 좌우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으로 여기고 더욱 총명하고 건강한 자녀를 낳아 기르려 하는 소망 속에서 매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 주의를 기울인 방법들이 태교의 금기 사항으로 태교 금기가 어떠한 원리에서 발생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感應의 원리이다. 임신을 하였을 때 선한 환경에 감응되면 태어나는 아기도 선하게 되고, 악

한 환경에 감응되면 태어나는 아기도 악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즉 나쁜 환경의 영향을 막아 태어나는 자식의 성품을 바르게 하는 것을 부모의 의무로 보아, 임부에게 나쁜 환경에 접촉하지 않도록 근신을 요구했다. 태교의 필요성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환경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부는 좋은 것에 감응되고자 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좋은 것만 보고 들으려 했으며 까다롭고 지키기 번거로운 금기 사항을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준수하게 되었다고 본다.

둘째, 外象內感의 원리이다. 외부 환경 대상에 따른 내적 심리적 감응이란 의미로 임부가 접촉하는 사물에 따라 태아도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람의 마음은 사물에서 느낌을 받으면 감정이 움직이게 되고 그에 의해 혈기가 따라 움직여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바로 태아 때 외부의 기운이 가장 잘 전염되고, 모체의 감정이 태아에 가장 쉽게 전달되므로 무엇보다 임부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태아의 감각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아의 매월 성장 과정에 따라 태교의 내용과 방법을 구별하고 있다. 이는 태아가 외부 대상의 자극에 감각적 반응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전통 태교의 내용 중에는 금기 사항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한국 전통 태교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전통 태교를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시대착오적인 잔소리쯤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태교 금기는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인 규제, 삼가, 통제의 면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지니는 의미는 이러한 규제들이 억압적인 강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육체적인 것 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중시했던 선조들의 측면이 '임부와 태아에게 나쁜 것이 범접할 수 없게 한다'는 금기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현대의학에서의 산전관리는 생리, 병리학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임신부부들이 문화적

관행에 따라 큰 비중을 두고 실천해 온 임신관리 방안인 전통적 태교는 태아와 부모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성숙의 측면에서 오히려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VI. 結 論

1. 한국 전통사회는 사회적으로 가부장제 가족제도, 경제적으로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생명의 잉태와 관련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즉 태교 사상은 생명 존중 사상에 근거해서 선조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진 선구적인 교육관이라 할 수 있다.
2. 전통 사회의 태교 방법으로는 행동상의 절도 및 심리상의 절제가 주가 되었다. 즉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훌륭한 아기를 낳기 위한 지침으로 지켜야 할 제약, 즉 금기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의 내용을 태교 금기라 할 수 있겠다.
3. 서양에서의 산전관리는 임부의 건

- 강과 태아의 정상적인 신체발육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보다 폭넓은 차원을 추구하는 전통적 태교와는 차이가 난다. 즉 태교는 산전관리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가는 실천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높은 차원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행위이면서 우리 문화에 익숙한 실천 지향적인 행위이다.
4. 한국 전통 태교 사상의 구체화는 대체로 중국 고전에서의 인용 해석이거나 부분적인 인용이었고, 생활 속에서 관습에 의한 임부보호나 음식물 금기 등으로 전해지면서 준수되거나 실천되었다.
 5. 중국의 단편적인 태교 기록이 한국 전통사회에 전래되어 보다 구체적이며 풍요하고 본격적인 태중교육으로 발전하면서, 태교는 아동교육의 첫 단계로 정착되고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6. 자연의 변화가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전통태교에서는 천기, 지기, 인기의 셋 등으로 금기 사항을 나누어 지켜야 할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7. 한국 전통 태교 금기는 共同 規律性, 限時性, 豫防性의 특성을 가지며, 感應과 外象內感의 원리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VII. 參考 文獻

1. 고미향·정상아 : 정신박약아 부모의 태교실천에 대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83, p. 18.
2. 권영철 : 胎敎新記 연구, 대구, 효성여자대학, 1996, p. 159.
3. 琴玄洙 : 傳統的 胎敎와 現代的 胎敎의 比較考察, 東西醫學 77, 1999, pp.34~52.
4. 김계숙 : 한국 기혼남녀의 태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1987, p. 15.
5. 김명희 : 천도교의 태교 사상,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1, p. 52.
6. 김양완 : 병허각 이씨의 閨閣叢書, 서울, 보진제, 1992, p. 325, pp. 325~331.
7. 김영복 : 東醫寶鑑 역, 서울, 근영출판, 1992, p. 561. p. 564. p. 567. p. 568. p. 569.
8. 김종권 : 사소절, 서울, 명문당, 1997, pp. 241~242.
9. 김현욱 : 태교실천에 대한 일상 생활 기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6, p. 200.
10. 金惠子 : 出產 婦人의 胎敎 實態에 관한 調査 研究, 全南大 大學院, 1991, p. 18.

11.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 부인과학, 서울, 칼빈서적, 1991, pp.176~ 177, p.191.
12. 두산동아편집부편 : 새국어 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13. 민중서림 편집국 : 엡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9.
14. 박일봉 : 소학 역주, 서울, 육문사, 1997, p.20.
15. 김달수 : 천도교재(설정·주석), 서울, 서북영우회, 1995, p.20, p.173, pp.322~323.
16. 孫思邈 : 千金要方,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p.18~21.
16. 송영달 : 우암선생 계녀서, 서울, 정음사, 1986, pp.12~45, pp.20~21.
18. 안경식 : 중국 전통 태교론의 형성과 전개 과정, 한국적인 의미와 학도 불이, 1999, pp.127~128, p.129, pp.130~131, p.140.
19. 유안진 :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p.60, pp.128~129, p.133, p.151, p.182, p.189.
20. 劉向 : 列女傳, 四庫全書, pp.10~11, pp.10~11, pp.607~608.
21. 이민수 : 예기 역해, 서울, 혜원출판사, 1995, p.208.
22. 이원호 : 오늘의 태내 교육,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7, pp.17~18.
23. 이인산 : 산전관리, 대한한방부인과 학회지, 1993, p.59.
24. 임동근 : 태, 서울, 우성출판사, 1996, p.265.
25. 정정혜 : 한국 전통사회의 태교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대학원, 1988, p.27, p.40.
26. 주정일 : 태교 출산의 지혜, 서울, 샘터사, 1994, p.9, p.28.
27. 하수연 : 한국 전통 태교의 금기에 관한 연구, 東亞大 教育大學院, 1999, p.1, p.9, p.34.
28.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서울, 웅진출판, 1995.
29. 한재찬 : 태교신기 역, 서울, 성보사, 1976, pp.19~21, p.28, p.50, pp.54~74, p.76, p.77, pp.76~85.